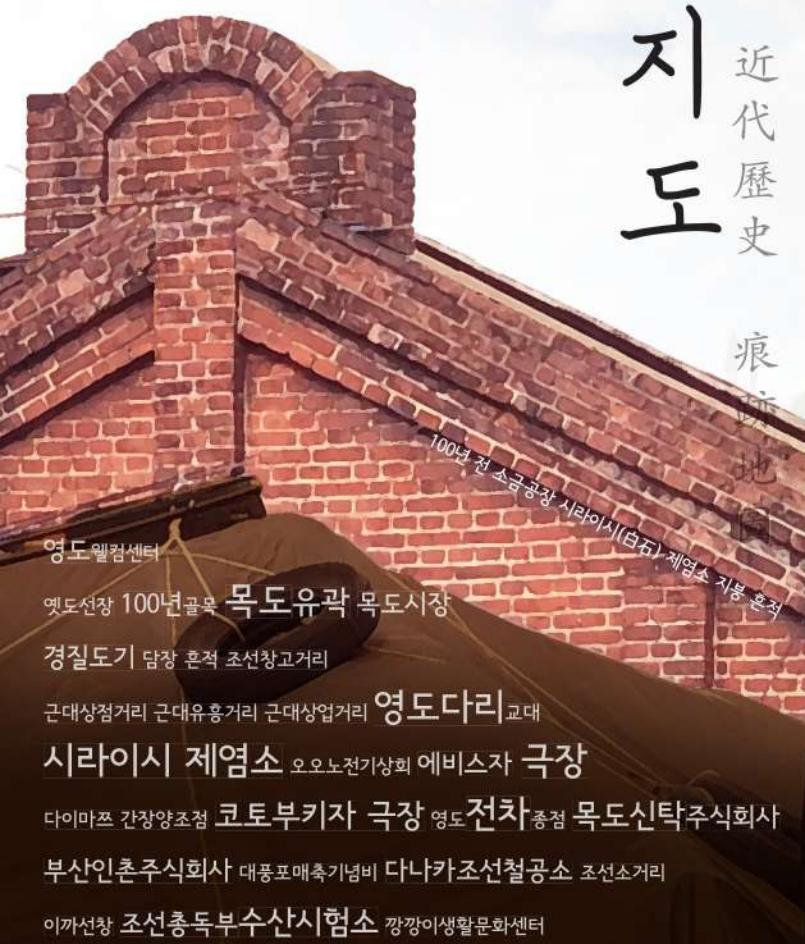


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





영도의 길

영도 100년 옛길

영도의 길은 절영도(絕影島)로 불리우던 예부터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영도민들과 함께 근현대사를 함께하며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지역의 삶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의 지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1919년 측도, 1924년 발행한 지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길을 추출한 영도 100년 길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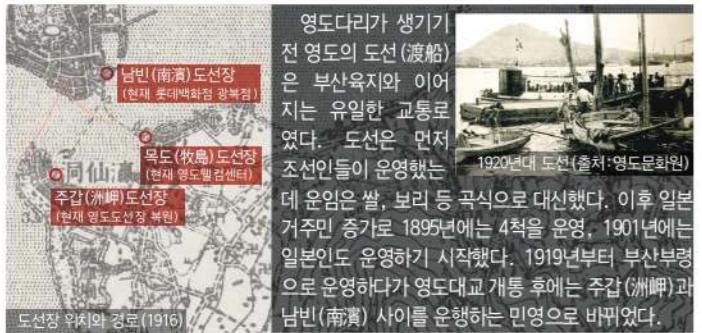


대풍포 매축

'바람을 기다리는 포구'라는 의미인 대풍포(待風浦)는 현재 영도구 대평동(大平洞) 일대에 있던 포구로, 1910년 오오자와(大澤)라는 일본인이 어업전진기지로의 개발을 위하여 매립공사를 착공, 1926년 6월에 준공되었다. 10년간 40, 200평을 매립하였는데, 대풍포 매축에 의해 영도 서쪽에는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1923)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게 되었다. 매립지에는 주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대풍포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주변에 조선소 및 술집과 위락 공간이 조성되었다.



영도의 바닷길



영도대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애환이 담긴 부산의 랜드마크 영도대교는 1934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부산 최초의 연륙교이다. 자동차, 전차의 교통과 선박의 항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도개교 구조로 1931년 3월 영도대교(당시 명칭 부산대교)를 착공, 1934년 11월 개통한다. 다리 총 길이는 214.6m, 폭 18m(왕복 4차로)였다. 개통한 날 영도다리를 들어 올리는 진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6만여 명의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당시 부산인구가 16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도다리의 인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영도 전차길

영도선 전차는 1934년 11월 23일 영도대교가 준공되면서 1935년 2월 영도선(당시 목도선 牧島線)이 복선으로 개통되어 1967년 5월 20일까지 운행되었다. 영도선은 부산부청(釜山府廳, 구 부산시청) 앞에서 영도 대교를 지나 지금의 남항동 시장까지 운행되었다.



근대영도의 산업

도기산업

일본 경찰도기주식회사는 조선방직과 함께 근대 부산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였으며, 조선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자기 제조공장 이었다. 1908년 일본 가나자와의 지역 향토기업으로 설립되어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시경기에 편승하여 1917년 조선에 진출했다. 식민지 조선의 원료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경영전략 이었다. 일본 경찰도기주식회사 자리에는 현재 미광 마린타워아파트(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14번길 17)가 들어섰고 단지 인근에 당시의 붉은 벽돌 담장 일부가 남아 있다.



조선업



근대식 조선소가 입지한 것은 1887년 다나카 조선소이며 지금의 자갈치인 남빈에 소재하고 있었다. 1912년 다나카 키요시가 기업을 이어받아 영도에 철공업을 겸한 조선소를 설립했다.

나카무라 조선소는 나카무라 규조(中村久藏)가 1893년 부산으로 이주해 남포동에 철공소를 설립한 뒤, 1902년 대평동으로 옮겨 설립한 조선소이다. 1913년 나카무라 다카쓰구(中村高次)가 기업을 이어, 부산에서 신용 있는 큰 조선소로 키웠다.

옛 다나카 조선소(영도구 대평로 56)와 나카무라 조선소(대평로 62)가 있던 장소에는 지금도 조선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100년간을 이어온 조선산업 경관을 엿볼 수 있다.



제염업



시라이시 제염소(白石製塩所)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대표적 제염업체인 시라이시 우마타로(白石馬太郎)가 1915년 5월 영선동 1950번지(현재 영도구 남항서로 128 일대)에 설립하였다. 지금 영도지역 산업 가운데 제염업 관련 업종은 남아있지 않지만,

100년 전 운영되었던 시라이시 제염소(白石製塩所)의 건물 중 일부가 남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 개항 이후 재제염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도가 재제염 산업의 메카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라이시 제염소는 근대 영도가 남겨준 영도지역의 유형자산이라고



근대영도의 상업

시장

목도시장은 1932년 6월 1일 개장하였다. 규모는 대지 718평, 건평 225평 이었다. 목도시장은 초량시장과 함께 여섯 번째로 개설된 공설시장이다. 1942년 당시 운영되었던 공설시장은 총 147개소이다. 목도시장은 개장이래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여 1941년에는 초량시장, 수정시장, 영주시장, 부전시장 보다 매출액이 많은 시장이었다. 목도시장 자리에는 현재 봉래동 대화아파트(절영로 13번길 25)가 들어섰고 단지 인근에 당시의 붉은 벽돌 담장 일부가 남아 있다.



극장

영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연극 전용 극장은 에비스자극장(蛭子座, 1912~1918년?, 남항동 1가 98 일원)이다. 코토부키자 극장(壽座, 1924~1990년, 남항로 9번길 5)은 에비스자 극장과 대영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활동사진 상설관이다. 일제강점기 21년 및 광복 이후 45년간, 총 66년 동안 영업했다. 1926년 사구라바 후지오가 제2사이아이자(幸座)로 영업을 개시, 이후 코토부키자로 개명한 뒤 해방을 맞이 하였다. 1946년 항구(港口) 극장으로 개명 후 1990년 폐관했다.



유곽

1932년 당시 영도에는 유곽이 13개 있었다. 그중 6개소가 대평동에 입점하고 있었다. 유흥시설인 유곽이 대평동에 6개소 입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과는 달리 당시 대평동도 영도의 중심 유흥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1938년 부산안내도에서는 목도유곽이 소개

되고 있는데, 목도유곽거리는 총 6개소의 유곽

이 입점하고 있었다(현재 절영로 14번길 1일대).

당시 지번도를 확인해 보면, 유곽들은 주로 목도(牧島)도선장(현재 영도웰컴센터)과 주갑(洲岬)도선장(현재 영도도선장 복원) 인근으로 집중 입점되어 있었다.

기타 시설

1923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朝鮮口督府立水產試口場)이 개설되었다. 수산업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험 조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설립되었다(현재 위치 영도구 남항서로 91번길 27,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일대).

목도신탁주식회사(牧島信託)는 1924년 8월 8일 설립된 금융신탁회사이다. 금융업, 차입금, 기타 일반 채무의 보증, 자금 운용 위탁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위치 남항로 10번길 11).



영도 근대 역사 연표

삼한시대

- 변한(弁韓)에 소속, 후에 가락국(駕羅國)의 속령(屬領)

신라시대

- 거칠산(居漆山國) 속령(지종왕 6년)

고려시대

- 동래현(東萊縣) 속령

조선시대

- 동래부(東萊府) 관할

- 절영도진(絕影島鎮) 설치

1881

- 08월 22일 일계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1910

- 10월 01일 총독부령 제7호(10.1공포)로 행정구역 개편

1914

- 03월 01일 총독부령 제111호(1913.12.29공포)로 행정구역 개편
부산부를 부산부(중서·동영도구지역) 동래구(옛 동래부 일부 지역과 기장군 포함)로 행정구역 조정

1916

- 절영도 대풍포 매축공사 착공

1923

- 06월 20일 영도에 수산시험장 개설(한국립 수산진흥원)

1924

- 부산 수상경찰서 영도에 신설

1926

- 06월 절영도 대풍포 매축공사 준공

1931

- 07월 08일 영도대교 선류장 및 남항방사례 착공

1932

- 04월 20일 영도대교 착공(당시의 명칭은 부산대교였음)

1934

- 11월 23일 영도대교 준공

1935

- 02월 목도(영도)선(대교동~영도대교~남항동 시장) 선로(복선)연장 개통

1939

- 01월 02일 부산남항 매축공사 준공

1945

- 05월 05일 국립해양대학 개교(한국해양대학교 전신)

- 08월 15일 2차 세계 대전 종전 및 광복

1948

- 0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1

- 09월 01일 영도출장소 설치

1957

- 01월 01일 영도구로 승격

1966

- 09월 01일 도개식 영도대교 고정

1967

- 05월 20일 영도선 전차 폐선

1980

- 01월 30일 부산대교 개통

2008

- 07월 09일 남항대교 개통

2013

- 11월 27일 영도대교 복원 개통

2014

- 05월 22일 부산항대교 개통

주요기관 연락처

영도구청	* 051-419-4000	* http://www.yeongdo.go.kr
부산시청	* 051-120	* http://www.busan.go.kr
영도문화원	* 051-403-1861~2	* http://www.ydculture.com/2011
강경이 예술마을	* 051-418-1863	* http://kangkangee.com
흰여울 문화마을	* 051-403-1861	* http://huinnyeoul.co.kr
영도 웰컴센터	* 051-419-4048	
부산시티투어 점보버스	* 051-714-3799</td	